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k.net

주일오전설교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갑작스러움

[살전 5:1-2]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아크리보스) 정확히, 충분히 알아라.

‘때와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며 그때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 자들이 변화되는 때이기도 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에 관해 그들이 정확히,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의 날’은 구약성경에 ‘여호와와 그의 날’로 자주 언급된 날이다. 그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표현은 주님 자신의 표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재림의 갑작스러움을 나타낸다. 마태복음 24:42-43에 보면, 주께서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고 말씀하셨다.

[3절] [이는(전통사본)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못할 것임이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안일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주 예수께서도 재림 직전의 세상의 모습에 대하여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롯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셨다(마 24:37-38; 눅 17:26-28). 그때 멸망이 홀연히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멸망의 갑작스러움은 마치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을 것이다. 홀연히 임하는 그 멸망은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세상의 종말, 곧 인류 역사의 대 종말이 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한다. 사람의 개인의 죽음도 예상할 수 없이 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갑작스럽게

올 것이다.

[4-6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 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형제들아’라는 말은 본 서신에서 14회 나온다(1:4; 2:1, 9, 14, 17; 3:7; 4:1, 10, 13; 5:1, 4, 12, 14, 25). 이것은 매우 친근한 호칭이다.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도 우리를 ‘형제들’이라고 부르셨다. 마태복음 28:10,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며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이다.

본문은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만, 어두움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며,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주의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어두움에 있는 자들은 안일하게 살다가 갑자기 멸망을 당하지만, 빛의 자녀들은 준비하며 살다가 재림을 맞이할 것이다.

본문은 이와 같이 빛의 아들과 어두움의 아들, 낮의 아들과 밤의 아들을 대조시킨다. 어두움의 아들과 밤의 아들은 세상 사람을 가리키며 구원받기 전의 우리의 상태를 가리킨다. 밤은 안 좋다. 밝은 것이 좋다. 범 죄자들은 밤을 좋아하지만, 그것은 밤이 좋아서가 아니고 자기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일 뿐이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두움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한다. 그는 어두움의 아들이나 밤의 아들이 아니고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어두움은 무지와 죄와 불행과 죽음을 가리키고, 빛은 지식과 의와 행복과 생명을 가리킨다.

그런데 빛의 아들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해야 한다는 의무이다. 잔디는 말은 비유적으로 죄를 짓고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생활을 한다는 뜻이다. 반면에 깨어 근신한다는 것은

정상적 신앙생활,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을 가리킨다. 성도는 깨어 근신해야 한다.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힘써야 한다.

[7-10절]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취함이니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흥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것임이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문은 깨어 근신하는 생활을 믿음, 사랑, 소망의 생활로 묘사한다. 믿음, 사랑, 소망은 성도의 정상적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예정하셨기 때문이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될 것이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구원받은 자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도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는데 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큰 복이다. ‘깨든지 자든지’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나 비유적인 의미(육신적인 삶과 죽음)가 다 가능하다. 성도의 정상적 신앙생활은 항상 주 안에 거하며 주와 함께 사는 것이다.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라’는 원어는 4장 끝에 ‘서로 위로하라’는 말과 동일하다. 또 ‘피차 덕을 세우라’는 말은 ‘서로에게 유익을 주며 서로를 건립하라’는 뜻이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성도는 자신의 신앙 성장에만 힘쓸 것이 아니고, 다른 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힘써야 한다. ‘너희가 하는 것같이 하라’는 말은 이 교훈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그들이 행하고 있는 바임을 보인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교훈이 그들의 현재 행위를 인정하면서 준 교훈임을 나타낸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권면할 때 그들의 과거와 현재의 믿음의 삶과 선한 행위를 무시하지 말고 인정하면서 권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주의 재림은 갑작스러울 것이다. 특히 멸망 받는 자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그 날을 맞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도적같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의 재림은, 비록 성경의 교훈대로 그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것이지만, 갑작스런 사건일 것이다.

둘째로, 주의 재림은 성도들에게는 갑작스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로서 깨어 있기 때문이다. 성도들의 깨어 있는 삶이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 곧 정상적 신앙생활을 가리킨다.

셋째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함으로써 덕을 세워야 한다. 히브리서 3:12-13,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을 면하라.” 히브리서 10:24-25,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일오후설교

천년왕국

본문은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천년왕국을 신약 교회시대로 본다(무천년설). 둘째는 천년왕국을 교회 시대 후기의 복음의 황금시대로 본다(후천년설). 셋째는 주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신다고 본다(전천년설). 요한계시록 20:1-10은 첫 번째 견해(무천년설)나 두 번째 견해(후천년설)로는 해석하기 어렵고 세 번째 견해(전천년설)로 가장 잘 이해된다고 보며, 또 천년왕국의 성격은 신약적이어서 한다고 본다.

[계 20:1-3]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무저갱(無底坑)은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으로 사탄과 악령들의 감금 장소로 생각된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권세를 가지고 용을 잡았다. ‘용’이라는 원어(드라콘)는 ‘큰 뱀’을 가리킨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케 했던 그 뱀 곧 마귀요 사탄이다. ‘마귀’라는 원어(디아볼로스)는 ‘훼방자, 참소자’라는 뜻이며, ‘사단’이라는 원어(사타나스)는 ‘원수, 대적자’라는 뜻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인류를 범죄케 하고 타락시킨 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훼방하고 참소하는 자요 하나님과 인류의 원수이며 대적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를 잡아 결박하여 천년 동

안 무저갱에 가두게 하시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하셨다. 마귀는 천년 동안 세상 나라들을 미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감금은 천년 동안이다. 천년이 차면 사탄은 반드시 잠깐 놓일 것이다.

어떤 이들은 마귀의 결박과 감금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효력을 가리킨다고 본다(무천년설). 그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감금되었기 때문에 그가 복음 전파의 사역을 방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사탄의 잠시 놓임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효력이 잠시라도 무효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의 천년 동안의 감금을 신약시대 전체로 보는 것은 바른 해석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그 이상의 뜻, 곧 문자 그대로 사탄이 결박되고 감금되는 것을 뜻할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주께서 백마 타고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폐하신 후에 사탄을 천년 동안 감금시키실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본문에 가장 맞는 해석일 것이다.

[4-5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사도 요한은 몇 가지를 보았다. 우선, 그는 보좌들을 보았다. 보좌는 재판하는 권세를 상징한다. 사람들이 그 보좌들에 앉아 있었다. 거기 앉은 자들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원문에는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다. 아마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모든 성도들을 가리킬 것이다.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심판하는 권세’라는 원어(크리마)는 보통은 ‘심판’이라고 번역되지만 여기서는 ‘심판하는 권세(NIV)라고 번역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을 보았다. 그것은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이다. 물론 그들도 심판의 권세를 받고 보좌들에 앉은 자들 중에 포함될 것이다. 또 사도 요한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았던 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순교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진실한 성도들을 가리키며 그들이 다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이라고 본다. 적그리스도들의 활동은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거쳐 신약교회의 역사상 항상 있어 왔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는 더욱 절정적으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들의 세력에 복종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자들도 교회 역사상 항상 있어 왔고 마지막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 다음 구절의 원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들은 앞에 언급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본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음절에 언급된 ‘첫째 부활’이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만일 앞에 언급된 자들이 순교자들만을 묘사한 것이라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예수님 믿는 나머지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지만, 앞에 언급된 자들이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과 악인들을 가리킨다고 본다. 즉 이 구절은 의인들의 부활과 악인들의 부활을 구별한 것이라고 본다. 고린도전서 15:23-24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본문의 ‘첫째 부활’은 성도들의 영혼의 중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본다. ‘부활’이라는 원어(아나스타시스)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12, 13, 21, 42절). 그 말은 성경에서 중생(거듭남)을 위해서는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복되다. 그들은 몸의 구속(救贖), 즉 몸의 영광스런 부활을 받은 자들이므로 완전히 거룩함을 얻은 자들이다. 둘째 사망 곧 지옥 형벌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계 5:10)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그 천년은 사탄이 결

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온 세상에서 사탄의 미혹이 없고 불법이 상당히 억제되고 풍성한 평화가 있을 것이다. 천년왕국은 복된 시대가 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장차 사탄은 천년 동안 결박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결박하여 천년 동안 감금하실 것이다.

둘째로, 성도들은 복된 부활을 할 것이다. 그것이 첫째 부활이다. 그것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을 가지는 부활이며(고전 15:42-44), 영생의 부활이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며 둘째 사망, 곧 지옥 불못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을 것이다.

셋째로, 부활한 성도들은 장차 주 예수님의 재림 후 그와 함께 세상을 심판할 것이며 또 그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고린도전서 6:2,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디모데후서 2:11-12,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수요일 설교 **하나님께서 버리심**

[사 2:5]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빛에 행하자.

빛은 지식과 진리와 의와 기쁨과 생명을 상징한다. ‘여호와와 빛’은 하나님의 지식과 진리와 의와 기쁨과 생명을 가리킬 것이다(시 119:105; 요 1:1-4, 9; 요일 1:5-7).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과 진리 안에 행해야 하며 그의 의와 기쁨과 생명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며 참 행복이 거기에 있다.

[6절] [이제]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인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이유는 한가지뿐이다. 그것은 죄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보다 우상숭배의 죄이었다(왕하 17:6-8).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이방인들과의 교제에서 비롯되었다.

[7-9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10-11절] 너희는 바위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와 위엄과 그 광대하심 두려우심과 위엄의 영광을 피하라.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그 날에 사람의 교만한 눈이 낮아지며 사람들의 높은 마음이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버리심의 결과에 대해 증거한다. 하나님의 버리심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다. 그들은 바위틈이나 땅 속에 숨어 여호와와 위엄의 영광을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상숭배의 근본 원인은 사람의 교만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사람들의 교만한 눈과 높은 마음은 다 꺾어지고 부서질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근본적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이었다.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했고 그들은 블레셋 사람처럼 술객이 되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죄로서 십계명의 1, 2계명을 어긴 죄이며 사람의 죄 중에 가장 큰 죄이다. 현대인의 우상은 돈과 쾌락이다. 우상숭배자는 지옥에 던지울 것이다(계 21:8). 우리는 우상숭배를 멀리해야 한다.

둘째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떨어진 것은 이방인들과의 교제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손을 잡고 언약하였다. 우리는 불신 결혼을 하지 말고 불신자와의 교제를 조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하지 말라”고 교훈했다(고후 6:14).

셋째로, 이스라엘에는 은금과 보화가 많았고 말과 병거가 많았으나 그 물질적 부유는 그들로 인이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지 못하게 만들었다. 부자는 믿음 생활 바로 하기가 어렵고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우리는 물질적 유여함을 의지하지 말고 조심해야 한다.

넷째로, 우상숭배의 근본 원인은 사람의 교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때에 사람의 모든 교만이 다 파해지고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빛에 행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과 진리와 의를 믿고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거기에 성도의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고 행복과 영생이 있다.

책안내 전화: 02-334-8291 oldfaith@hjdk.net

- 소신지서 강해. 2판. 318쪽.
- 빌립보서 골로새서 강해. 2판. 143쪽.
- 신약성경 전통본문 옹호. 166쪽.
- 공산주의 비평. 4판. 44쪽.
- 요한 1, 2, 3서 유다서 강해. 2판. 104쪽.
-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강해. 2판. 169쪽.
- 천주교회 비평. 2판. 97쪽.